

현대불교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명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진동음이 부끄러움 오염되지 않는 피부!

자극 없는 세안제 사용으로 인공적으로 싶은 인공적인 피부
이제 천연 성분 함유한 천연 피부 케어 제품을 소개합니다
천연 주성분 함유한 천연 피부 케어 제품입니다

(주)에스.에스.에스.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2층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영예회장 노대형/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위원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3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지난 15일 2년 4개월만에 마침내 창립되었다. 재가신도공동체로서 중앙신도회는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심보를 외호하며 불자들의 바른 신행을 이룰 신행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신도회가 명실상부한 신도들의 수행모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도(信徒)의 본분을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불교 신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다시 새겨야 할 때다. (편집자 주)

부처님을 믿는 사람, 끝내 한 스승에게 배우고 있으니 다른 천신(天神)을 믿지 말라. 법을 믿는 사람, 남을 해치고 미워하지 말라. 스님들을 믿는 사람, 외도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 두려움 없으리라. (대반열반경)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분의 칭찬을 받고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법구비유경)

믿음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계행을 가져야 하며, 법을 자주 들어야 할 것이며, 인색함을 버리고 항상 회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지혜로써 법의 깊은 뜻을 살피야 한다. (잡아함경)

하늘도 생사를 면치 못하니 이 세상 무엇을 의지하겠오. 불·법·승 삼보를 멀리하고는 능히 나를 구할 자 아무도 없네.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이는 삼보에 귀의하여 수행을 하세. (대승리취유향비리밀다경)

너희는 마땅히 법 가운데서 서로 화합하고 순종하여 서로 송사를 일으키지 말라. (중일아함경)

꼭 봐야 할 사립불교

한 스승에게 배우고 있으니 우유와 불이 잘 혼합되듯 화합하라. (유행경)

믿음이 있어야 가쁜 물결을 건너고 게으르지 않아야 바다를 건너며 수행에 한꺼번에 고통을 떠날 수 있고 지혜로워야 청정함을 얻느니라. (별업집아함경)

같이 배우는 사람을 공경하되 형제처럼 생각하고, 겉으로는 물과 입의 허물을 단정히 하고,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에 허물이 없도록 단속하라. (불반나원경)

수행자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물을 소중히 여겼듯이 수행자는 경전을 소중히 여겨 부모 삼가듯 해야 한다. (장아함경)

북한주민 접촉 신청

조계종, 통일원에 식량 직접전달 시사

불교계가 식량고갈로 기아위기에 처한 북한주민을 직접 접촉, 식량을 지원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위원장 원주)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식량 긴급지원에 따른 협조요청과 북한주민 접촉 승인신청'을 지난 18일 통일원에 냈다.

조계종은 북한 주민 접촉승인이 나면 북한 불교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긴급 식량지원 대책을 마련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성공모듬' 중 일장역을 곡물(옥수수·감자 등)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통일원에 대북 식량긴급지원에 따른 협조요청과 함께 3가지의 전달방법(안)도 제출했다. 제1안은 관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다. 이밖에 제3국을 경유 북한측에 직접전달, 제3국에서 조선불교도연맹(회장 박태호)측에 전달하는 북한을 제시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능관스님은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한 식량지원을 해왔으나 전달차와 수급자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칫 균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냈다"고 설명했다.

통일원의 한 담당자는 "식량을 지원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지원방법인 북한주민 접촉신청은 민감한 부분"이라며 "신중히 검토해 20일내로 결과를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신교는 한국기독교북한동포 후원연합회(식량은행)를 창립해 첫 사업으로 조선기독교도연맹이 요청한 불보리 종자를 보내기로 했다. 또 국



범인은 노사나불(보물 968호·조선 인조때 조성) 복장부분을 파다가 큰 통나무가 드러나자 목부위와 왼쪽 팔꿈치까지 뜯어내 심복하게 한다

전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교계 자율권 강화

전통사찰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찰주변에서는 불교이외의 목적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변경·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내용 3면)

개정 전통사찰보존법은 △주지가 취임후 15일내 문체부장관에 신고했던 조항이 삭제 △경내지의 안도, 대어, 담보제공할 때 문체부장관 허가 이전에 소속종단 승인 등 불교의 자율성과 소속종단의 위상이 강화됐다.

개정 전통사찰보존법은 문화체육부에 이관돼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 발효된다. 한편 농지법과 자연공원법은 차기회기로 자동 이월됐다.

종교지도자協 17일 창립

의식개혁·청소년 선도등 6개분과위 구성

불교 원불교 기독교 등 6개 종교 최고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창립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7일 코리나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최치안 회장, 각 분과위원장 구성, 공동대표회의 의장에 원주스님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는 원주 조계종 총무원장, 최근덕 성광전장, 조정근 원불교 교정위원장, 김재중 천도교 교령, 한향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 6개 종교 최고지도자들이 참여한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각 종교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을 제시, 정신적 도덕적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법구적인 의식개혁 추진위, 청소년 선도위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학술회의 △종교예술축전 △도덕성회복운동 △건전전사회행사 △청소년선도 △통일대비여건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날 공동대표회의 의장에 선출된 원주스님은 "급격한 산업화로 생명경시 풍조, 물질만능사상, 도덕성상실, 환경 파괴 등에 대해 종교계가 화합해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기 위해 창립하게 됐다"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인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종교대표지도자들은 그동안 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통일민족공동회의(공동대표회장 원주),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자선스님 한재용 신부 김상근목사 김현교무), 한국종교인명회의회(KCRP)(회장 김용은신부) 등을 통해 활동해 왔다.

기림사 복장유물 도난

목부위·팔꿈치 훼손...관리 대책 절실

경주 기림사(주지 법일스님) 대적공전의 좌측 노사나불(보물968호·높이 3.3m, 폭2.5m)의 복장유물이 도난당했다. 97문화유산의 해를 무색케하는 첫 성보도난사건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허점이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흙·나무·종이로 벗어난 소조에 금물을 입힌 불상의 복장부분을 파다 큰 통나무가 드러나 목부위와 왼쪽 팔꿈치까지 뜯어냈다.

복장유물의 내용물을 몰라 피해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지난 86년 대적공전 주존불상의 복장에서 금·은사경 14권과 부처님 잔신사리 4과 등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이에 상응하는 성보가 분실됐을 것으로 수사진은 보고 있다.

대적공전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수공사를 실시, 보안장치가 해제된 채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돼 왔으며, 삼존불상은 훼손방지를 위해 나무판으로 가려진 상태였다.

경찰수사와 문화재관리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계종 총무원도 조사단을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 (경주=이윤호 기자)

선암사 관음전 불상 훼손

부산 선암사(주지 해민)의 관음전 내 불상이 훼손되고 단상의 공양물 및 의상법구들이 파손된 사건이 지난 14일 오후 6시경 발생했다.

선암사는 14일 오후 1시경 과천년 5명이 관음전 건물에 부서버려야 한다고 위협하는 것을 들었다는 신도 문모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부산진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다.

인도 성지순례 부실운영 15년

전통 영산재 지상중계 7년

우리절 알리기 寺誌 발간 12년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東國大學校僧伽總同門會

'97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

상구부리 화해증생의 일념으로 제방에서 노심조사 정진하시는 동문제위의 원력에 항상 감사드리며 우선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참 승가상으로 출발한 본회는 이제 세대를 맞이 하였고 2000 동국승가로 발전 하였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금년도 정기총회 및 정치지도자 초청강연을 개최하오니 동문 제위에서는 동국승가의 만남의 큰 자리가 되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1997년 3월 31일 (월) 오후 3시
장소: 서울 소피텔 엠베서더호텔 불문(02-275-1101)
내용: 1부) 정치지도자 초청강연 2부) 정기총회 3부) 저녁공양

사무실)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복합동 1507호 ☎(02)736-6203 723-5264

동국대학교승가총동문회 회장 월 탄 합장